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4

▶ 55회 예고
특사는 아쇼까에게 빠딸리뿌뜨라 상황을 보고한다. 이복형 수시마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듣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쇼까는 왕위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특별휴가를 받았으니 그곳에 갈 뿐이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 아쇼까에게 특별휴가 주다

다르마 왕비는 꼭두새벽에 강가강을 나갔다. 머리가 무거운 탓에 한 달 보름 만이었다. 왕족들이 기도하는 가트에는 듬성듬성 작은 천막들이 설치돼 있었다. 다르마 왕비가 먼저 차가운 강물에 들어갔다. 락슈미띳사도 토기항아리를 들고 뒤따랐다. 들판 너머에서 해가 솟구치려면 더 기다려야 했다. 강 저쪽에는 이미 다른 왕족들이 몸을 담그고 있었다.

다르마 왕비는 강물이 무릎까지만 차오르는 얕은 곳에 섰다. 그런 뒤 두 손으로 강물을 한 번 얼굴에 끼얹고는 기도를 시작했다. 빈두사라왕의 지병을 낫게 해달라는 발원을 먼저 했다. 그리고 손자 꾸날라와 아들 비가따쇼까가 무탈하게 자라기를 빌었다. 마지막으로는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기도였다. 아들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기도였는데, 다르마 왕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동쪽 들판에 날빛이 번졌다. 들판의 수수밭과 목화밭이 푸르스름하게 드러났다. 붉은 놀이 사라지면서 햇살이 부챗살처럼 퍼졌다. 핏덩이 같은 해가 머리를 내밀자마자 들판은 순식간에 밝아졌다. 다르마 왕비는 눈이 부시어 잠시 눈을 감았다.

목욕하러 온 성민들이 강물에 첨벙첨벙 몸을 담갔다. 다르마 왕비는 락슈미띳사가 건네준 토기항아리에 강물을 떠서 머리에 부었다. 푸른 비단 사리가 강물에 젖었다. 다르마 왕비는 다시 붉은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번에는 아쇼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했다. 락슈미띳사가 말했다.

"왕비님, 비가따쇼까 왕자님은 오늘 여기 오지 못합니다."

"비가따쇼까도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다르마 왕비가 실망하여 비가따쇼까를 원망하는 투로 말했다.

"아닙니다, 왕비님. 왕자님은 대왕님께서 부르시어 왕궁으로 가실 것입니다."

"열 살이 되더니 내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왕자별궁에 계시던 왕자님은 어제 오후까지도 강가강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대왕님께서 부르신다는 명을 받고 오지 못한 것입니다."

다르마 왕비는 원망하는 말투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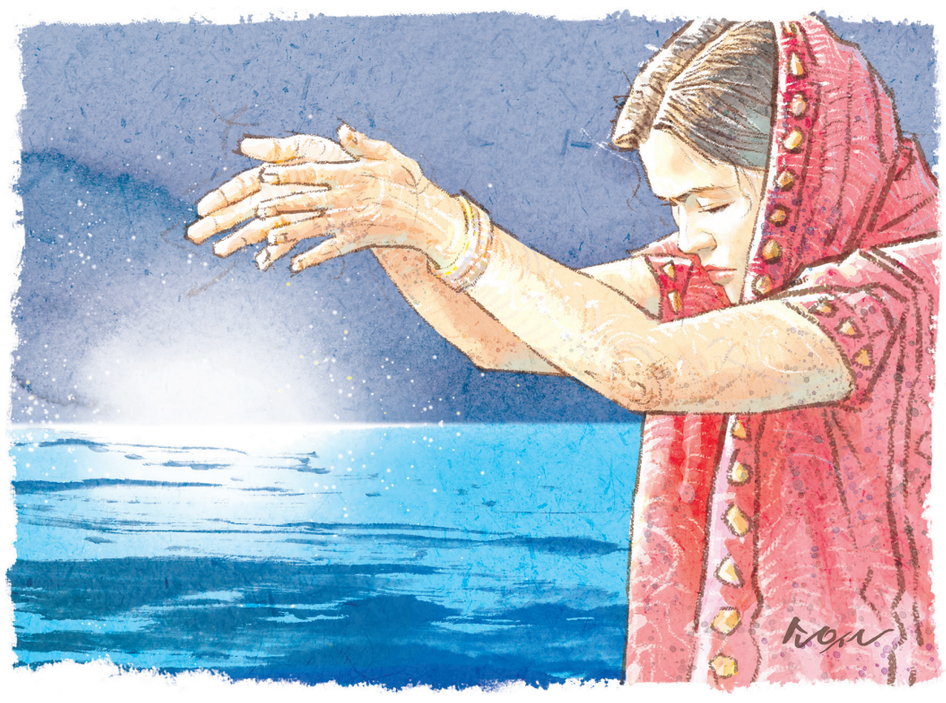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꾸날라도 강가강에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꾸날라 왕세손님은 탁실라에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꾸날라가 수시마를 따라서 탁실라로 간 것은 빈두사라왕의 지시 때문이었다. 꾸날라가 열한 살이 됐을 때 빈두사라왕은 탁실라 부왕 수시마 곁에 있으라고 보냈던 것이다.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낸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이었다. 빈두사라왕은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가 탁실라에 가 있으면 아쇼까를 옹호하는 대신들을 견제하는데 용이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꾸날라는 볼모로 가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수상 칼라따까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심복인 특사가 꾸날라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특사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올 때 수시마를 설득해 꾸날라만 데리고 올 수도 있었다.

꾸날라의 취미는 빈두사라왕이 생일선물로 준 현악기를 들고 다니며 노래 부르는 것이었다. 꾸날라는 빠딸리뿌뜨라에 있을 때도 왕궁 어디에서나 궁중정원의 새처럼 곧잘 구슬프게 노래하곤 했으므로 빈두사라왕은 "아, 꾸날라가 노래하는군!" 하고 그의 목소리를 바로 기억했다.



아침 일찍, 비가따쇼까는 왕자별궁으로 찾아온 친위대장을 따라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빈두사라왕은 비가따쇼까를 예고없이 부르곤 했으므로 어린 비가따쇼까는 놀라지 않았다. 늘상 있어 왔던 일이었다. 빈두사라왕은 수시마와 비가따쇼까를 편애했다. 아쇼까처럼 경계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르마를 많이 닮기는 했지만 자신의 날카로운 눈매를 빼닮은 비가따쇼까에게 저절로 마음이 갔다. 빈두사라왕은 여러 왕자들 가운데 비가따쇼까 나이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이 접견실에서 비가따쇼까를 맞았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비가따쇼까야, 갑자기 너를 보고 싶어서 불렀다."

"대왕님, 부모님이 아들을 보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오호, 그렇지."

"오늘은 어머님과 강가강에 목욕하러 가는 날인데 대왕님께서 부르시어 취소했습니다."

"너는 어찌 내 마음에 흡족한 말만 하느냐."

"저는 대왕님께서 즐거우시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너를 보니 또 수시마가 생각나는구나. 수시마 형같이 착한 너를 보니 말이다."

비가따쇼까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했다.

"대왕님, 저는 탁실라를 통치하시는 수시마 형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형님은 부왕이시고 저는 이제 검술과 승마를 훈련하기 시작한 왕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왕자라면 누구나 검술과 승마를 열 살 때부터 시작하지."

빈두사라왕이 탁자 옆에 세워둔 긴 칼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 칼을 너에게 주려고 불렀다. 내가 정복전쟁을 치를 때 사용했던 칼이다. 이제는 피를 잊어버린 칼이다."

비가따쇼까는 감격해서 접견실 바닥에 엎드렸다.

"칼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마우리아국을 위해 너무 많은 피를 묻힌 칼이다. 그러나 마우리아국의 평화를 가져온 칼이기도 하다. 그러니 칼을 보면서 마우리아국을 늘 생각하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칼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칼'이라는 명문이 마케도니아어로 쓰여 있었다. 칼은 아쇼까의 할아버지 짠드라굽따 선왕이 알렉산더 동방원정군을 물리칠 때 노획한 전리품이었다. 알렉산더에게 정의란 곧 통치행위였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똑같은 칼을 두 자루 가지고 있었는데, 수시마에게 먼저 한 개를 주고 남은 칼을 비가따쇼까에게 선물한 셈이었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너는 수시마 형을 도와서 마우리아국의 영광을 이어가도록 하거라."

"어머님께서 동생은 형님들을 도와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다. 올해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모른다. 나는 내 목숨이 이제 끝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비가따쇼까는 깜짝 놀랐다.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다. 빈두사라왕의 목숨도 목숨이지만 어머니 다르마 왕비의 소원이 이뤄지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기회가 되면 어머니 다르마 왕비를 반드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놀라느냐?"

비가따쇼까는 솔직하게 말했다.

"대왕님, 저는 어머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대왕님께서 수시마 형님과 저를 보고 싶어 하시듯 어머님께서는 아쇼까 형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빈두사라왕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비가따쇼까는 어머니 다르마 왕비를 위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님은 저와 아쇼까 형님이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와서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형님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쇼까 형님과 제가 만나는 것뿐입니다."

"너도 아쇼까가 보고 싶다는 말이냐?"

"보고 싶습니다. 웃자인과 탁실라 반란을 제압하셨다는 형님을 보고 싶습니다."

"음..."

빈두사라왕이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뱉었다.

"어머님 만류로 무산되었습니다만 제가 웃자인으로 내려갈까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네가 가는 것은 위험하지. 음..."

빈두사라왕이 도리질을 하면서 한 번 더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비가따쇼까가 또 말했다.

"어머님은 대왕님께서 아쇼까 형님에게 특별휴가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수없이 들어왔다. 칼라따까 대신도 말해왔고."

"수시마 형님도 작년에 특별휴가를 받아 오셨으니 아쇼까 형님도 그러셔야 합니다."

빈두사라왕이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수시마와 아쇼까를 차별하지 말라는 비가따쇼까에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네 뜻이 정말 그러하느냐?"

"아쇼까 형님이 오신다면 어머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빠진 건강이 좋아지실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 비가따쇼까야, 네 뜻대로 하마. 당장 특사를 웃자인으로 보내 아쇼까 부왕에게 특별휴가를 주겠다."

왕궁을 나온 비가따쇼까는 급히 왕비별궁으로 달려갔다. 강가강에서 막 돌아온 다르마 왕비는 정원을 산책하며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

"어머님, 대왕님께서 형님께 특별휴가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말이냐?"

다르마 왕비는 비가따쇼까의 말을 듣자마자 소리 내어 흐느꼈다. 락슈미띳사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몇 년 동안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일이 성취된 것 같아서였다.

"오, 강가강에 계신 시바 신께서 들어주셨구나."

"예, 어머님. 강가강에 정말로 시바 신이 사시나 봐요."

"그런데 비가따쇼까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인가 보다."

"무슨 일이죠?"

"이별은 슬픈 거란다. 담마팔 사문께서 떠나겠다고 하시는구나."

"사문께서는 저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거든요. 산스끄리뜨어나 별자리 등을 이미 다 배웠어요. 검술이나 승마는 친위대장님께서, 라다굽따 제관님께서는 점술을 가르쳐줄 것이고요."

"산치 절로 다시 가신다고 하는구나."

"다른 왕자들의 스승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늙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마냥 붙들 수는 없지 뭐냐."

"이별은 슬픈 거지만 어쩔 수 없군요."

"그래, 이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사람은 누구나 다 이별을 하면서 사는 거란다."

며칠 후, 담마팔은 빈두사라왕의 명을 받고 웃자인으로 가는 특사 일행과 함께 떠났다. 담마팔 사문이 산치 절로 돌아오기를 바란 사람은 상인 수장 데바가 아니라 데바 부인이었다. 데바 부인의 편지를 받은 담마팔 사문은 비가따쇼까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었으므로 즉시 허락했던 것이다. 산치 절에 머물던 비베깐난다 사문이 숫빠라까 뿐다라마 주지로 가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탁실라에 가 있는 심복에게 젊고 날랜 군사를 보냈다. 말고삐를 쥔 군사는 탁실라 성민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라는 칼라따까의 밀서를 가지고 달렸다. 수시마의 발을 탁실라에 묶어 두려는 모사였다. 소요나 반란이 일어나면 빈두사라왕이 명을 내리더라도 수시마는 빠딸리뿌뜨라로 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계속〉

간화선 실참의 터전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